

유럽 조세회피처의 개념, 유형, 그리고 전망

류주현*

Concept, Types, and Prospects of Tax Havens in Europe

Ju-Hyun Ryu*

요약 : 선진국들의 탈산업화 경향 속에서 세계 금융시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그 금융거래량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월경하는 금융거래의 방식이 점차 용이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국제적인 조세회피 활동들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제위기속에서 정치지도자들은 조세회피처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과거처럼 단순히 세율이 없거나 낮다는 강점에 멈춰진 조세회피처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축적된 금융노하우와 숙련된 노동력을 가지고 다수의 세계적 기업들을 창설하고 유치할 수 있는 기업지원서비스, 특화된 전문서비스, 자산을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늘려주는 서비스를 구축한 역외금융센터가 필요하다.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의 조세회피국들은 금융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 역외금융센터으로 진화하면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어 : 월경, 조세 회피, 조세회피처, 역외금융센터

Abstract : World financial markets have been growing rapidly in a deindustrialization. At the same time, it was rapidly increasing financial transactions, the method of its financial cross-border transactions become increasingly diverse and easily. The international tax avoidance activities also increased. However, because of the lasting economic crisis lately, the world's politicians have been forced to take notice of tax havens. So tax paradise(no-tax rate region) will no longer be growing. On the other hand, Offshore Financial Centers that have accumulated financial know-how and abundant skilled labor will continue to grow. We need 'Offshore Financial Centers' that have special ability to attract and support global companies, specialized professional financial services, the means to increase asset rather than tax avoid. European tax haven countries including Switzerland are expected to continue to evolve by means of global Offshore Financial Centers.

Key Words : Cross-border, Tax paradise, Tax havens, Offshore Financial Centers

I. 금융 세계화와 조세회피

세계 금융시장은 20세기 후반 선진국들의 탈산업화 경향 속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금융거래량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금융산업이 세계화된 네트워크로 변모하면서 더 이상 특정 지역의 경제위기는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넓게 영향을 주고 있다. 과거 자본의 이동은 제한적이었지만, 정보통신의 발달과 세계화 흐름속에서 월경 금융거래의 방식은 점차

용이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듯 금융의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그만큼 국제적인 조세회피 활동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예상된다.

장기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위기로 세계 각국과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더 이상 조세회피활동을 방관하지 않으려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영국에 본부를 둔 조세정의네트워크(TJN: Tax Justice Network)에 따르면, 개인 금융 자산 중 대략 21~32조 달러가 비과세 또는 약과세되는 세계 금융비밀주의 국가들에 분포하고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ryujh@kongju.ac.kr)

있다고 추정된다. 불법적이고 악용되는 금융 흐름을 유치하기 위해 '비밀유지'를 내세우는 지역을 가르켜 포괄적인 대안 용어로 '조세회피처(tax havens)'라고 한다. 특히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경 간 금융 이동 규모가 연간 1조~1.6조 달러로 추정된다고 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조세피난처 또는 금융선진국으로 '도피하는 자본(capital flight)'이 외자유치 규모를 능가할 정도로 계속 늘어나게 되면 국가 성장 잠재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오랜 내전과 분쟁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의 사례를 들어보면, 1970년대 이후 아프리카국가들은 외부 부채가 200억 달러 미만인 반면에 1조 달러 이상의 자금이 해외로 도피했다. 아프리카는 세계의 주요 순 채권국이지만 숨겨져있는 엄청난 해외자산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해외 도피된 자산은 일부 부유한 엘리트층의 소유로 해외 금융비밀주의로 보호받고 있지만, 부채는 대다수 아프리카 인구에 공개적으로 부담 지어지고 있다(<http://www.financialsecracyindex.com>).

그러나 이와 같은 불법적인 금융도피와 세금회피 문제는 선진국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이다.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일수록 높은 세율을 피하고 싶어하다 보니, 프랑스의 대표 배우인 제라르 드파르디외, 새버린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도 국적을 옮겼으며, 스웨덴 대표기업 이케아도 세금을 피해 네덜란드로 본사를 이전하였다.¹⁾ 금융산업 중에서도 세금과 법규를 피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비밀 해외기관을 만드는 대형 은행, 법률, 회계 법인 및 전문 업체와 같은 글로벌 금융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비밀주의를 제공하는 조세회피처들 간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이제는 조세회피 유치활동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 기능으로 부각되었다.

문제는 단순히 조세회피가 '회피된 조세'만큼만 정부 기구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비밀을 제공해주게 되면, 해외 세계 부패와 왜곡된 시장과 투자가 '효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점차 비밀의 세계는 금융 규제, 횡령, 내부자 거래, 뇌물 수수, 돈세탁, 그리고 온갖 부정 행위를 포함한 여러 악에 대한 점점 악순환되는 환경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조세회피처에 세금뿐만 아니라 성장할 종자돈인 자본을 빼앗기게 되어 대외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 위기와 뒤이어 계속되는 경제 위기,

심화되는 불평등에 대한 높아진 관심 등으로 절박한 정치경제적 위기상황이 되자 세계 정치인들은 드디어 조세 피난처에게 경고를 하기 시작하였다. 미국과 OECD가 중심이 되어 자국의 자본과 세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조세회피처의 은행비밀주의에 대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주간 금융브리프, 2013). 그 일환으로 OECD는 2009년부터 정기적으로 비협조적인 조세피난처 명단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세회피처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프랑스 경제장관은 영국령인 저지 섬 당국과 은행비밀주의 타파 및 조세 관련 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서에 이미 서명했으며, 또 다른 조세회피처와도 비슷한 내용의 협정을 계속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일도 최근 맨 섬 당국과 조세 정보를 교환하는 내용의 협정을 맺었다. 대표적인 조세회피처 국가인 리히텐슈타인과 안도라 역시 2013년 3월 세금 관련 투명성과 정보 교환에 관한 OECD기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모나코도 은행비밀주의 포기 선언을 했다.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영국령 버뮤다 등도 은행비밀주의를 포기하거나 완화하겠다고 이어 발표했다. 이처럼 조세회피처 국가들이 짧은 기간 너도나도 은행비밀주의를 완화하는 선언을 하는 것은 2013년 4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작성되고 있는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의 위력 때문이었다.

이제 세계 지도자들은 일상적으로 금융 비밀주의 및 조세 피난처의 재앙에 대해 이야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매커니즘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 새로운 매커니즘 첫 단계로 G20 국가들은 국가가 납세자와 범죄자의 월경 보유분에 대해 알아 찾을 수 있도록 '자동 정보교환'의 새로운 글로벌 시스템을 OECD가 적용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였고, 이 계획은 2017년부터 시행될 것이라 한다. OECD의 정보교환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범세계적인 동의를 이루어 졌으나, 이를 각 국가들이 실제로 어떻게 어느 정도 실행하느냐는 앞으로 더 진전시켜야 할 과제이다. 아직까지 현재 이 제도는 허점과 단점이 많다. 많은 국가들은 세계적 여론에 떠밀려 동의하였으나 소극적으로 동조할 생각을 하고 있으며, 만약 실행되더라도 많은 전문 인프라의 도움으로 그 실제 진행에 차질을 주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 비밀주의는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살아 있고 상당히 파괴적이다. 수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치적 압력이 없다면 글로벌 금융비밀주의는 계속될 것

이다. 실효성있는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도를 보완하여 보다 진전된 합의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한 첫번째 단계는 해외 금융비밀주의를 제공하는 국가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세회피처에 대한 자료는 수 많은 기구의 보고서들이 대부분이었으며, 학술적 연구는 경제학, 국제통상학, 세무학 분야에서 조세회피(배기수, 2014; 서영준·권순창, 2009; 안숙찬, 2012; 오윤, 2014; 이준봉·이재호, 2014; 이찬근, 2013; 임동원·오윤, 2013),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박인섭, 2008), 글로벌 금융시장(김대식·곽기영, 2013; 김정환, 2004) 개념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지리학 분야에서는 별도의 학술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적 이해가 부족했던 타 학문에서의 연구와 차별적으로 지리학에서의 조세회피처 지역을 처음 다루고자 하였으며, 간략하게나마 유럽의 조세회피처 전망을 하고자 한다. 세계적 자본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 중 하나인 유럽 내에 위치한 조세회피처들은 물리적 거리와 문화적 거리가 가까운 지리적 근접성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금융 세계화를 건전하게 주도하는 글로벌 역외금융센터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단순한 조세회피처 역할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글로벌 역외금융센터로 성장하고 있는 유럽 조세회피처를 중심으로 조세회피처의 개념과 유형, 사례지역을 OECD와 조세정의네트워크의 자료를 주로 이용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II. 조세회피처의 개념과 유형

조세회피처라는 용어는 1950년대 이후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조세회피처는 주권국가이거나 종주권을 가진 지역이어서 자신들의 국내법을 제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합법적 독립체이며, 자치권을 이용해 비거주자인 개인이나 기업이 실제로 경제적 거래를 하는 지역에서 부과되는 규제적 의무사항을 회피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한다. 지역별로 명칭이나 기능도 다양하다. 프랑스에서는 조세회피처를 금융낙원 또는 금융천국(paradis fiscaux)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조세회피처는 조세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금융 목적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조세회피처의 개념을 여러 언어로 번역하다 보면 약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나라

다 조금씩 다른 조세회피처의 역할이나 기능을 반영한 결과이다. 스페인 사람들은 asilos de impuesto(조세회피처)로 생각하지만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paradisos fiscales(조세천국)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rifugio fiscal(금융피난처) 의미이며, 독일에서는 영국에서 사용하는 조세회피처와 유사한 의미인 Steuerhafens를 사용한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조세회피처가 '특별 조세구역'이 되는데, 이것은 세금을 적게 부과해서 자본에 대한 조세 유인을 제공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국제기구들은 최근에는 역외금융센터 또는 국제금융센터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이는 조세회피처가 다른 금융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Palan *et al.*, 2010:2-3).

분명 조세회피처와 역외금융센터는 다른 목적으로 다른 시기에 발전했으나, 현재 두 활동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역외금융센터의 개념은 상대적으로 최근인 1980년대 초에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가장 큰 역외금융센터는 영국의 시티오브런던과 미국의 역외금융시장(International Banking Facilities: IBF), 일본역외시장(Japanese Offshore Market: JOM)이다. 사실상 역외금융센터의 발전은 전통적인 조세회피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역외금융센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미흡한 규제 혹은 느슨한 감독 체계는 조세회피처나 돈세탁을 위한 목적으로 쉽게 남용될 수 있다. BIS와 IMF를 포함해 국제금융조직은 역외금융센터라는 의미를 조세회피처 역할로 시작되었지만 그 이후 보다 전문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발전적인 금융지역을 가리켜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조세회피처를 점잖게 표현할 때 흔히 사용하고 있다.

조세회피처의 기준으로는 OECD가 1998년 발표한 판정기준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즉 조세회피처는 무세율 또는 명목상의 세율 적용, 세법 적용상의 투명성 결여, 다른 정부 기관과의 정보 공유 제한 등 세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되며, 키프로스나 리히텐슈타인이나 케이맨 제도와 버뮤다 등 50~60곳에 이른다. 이 곳에는 수천 개의 은행과 펀드, 보험회사 등이 세운 200만여 개의 페이퍼컴퍼니가 있다. OECD가 조세회피처로 규정한 곳은 38곳이나, OECD와 조세 정보 교환을 약속하면서 블랙리스트에서 빠진 국가들도 있어서 현재 33개 지역을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조세회피처 유형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조



그림 1. OECD가 지정한 조세회피처
출처 : 중앙일보, 2009년 2월 23일.

세회피처의 고전적 유형인 tax paradise(완전 조세회피지역, 무세국)는 대부분 아주 작은 규모의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 기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뒷받침할 대학이나 연구소, 풍족한 역내 자원이 있는 곳은 거의 없다. 그저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금융 관련 종사자들에게 일종의 수수료를 받는 대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세회피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인 주권을 이용하도록 해주는 하나의 금융 경로일 뿐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신자유주의가 힘을 얻으면서 그 전까지는 극소수 부자의 자금 은신처와 검은돈의 세탁소라는 낙인이 찍혔던 조세회피처 중에서 일부 조세회피처는 합법적으로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조세회피처에 위치한 역외금융센터(Offshore Financial Centers)들은 오랜 금융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저세

율과 다양한 기능으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전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산업의 성장을 이끌게 될 것이다.

tax resort 유형의 특수활동 특혜 사례로 네덜란드와 아일랜드를 들 수 있는데, 이들 국가의 경우 음반판매 등에 붙는 로열티와 특허료, 배당금, 이자 등에 대한 세금이 거의 없는 덕분이다. 로열티 등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에 따라 로열티나 특허료가 많은 회사가 주로 네덜란드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그래서 코카콜라, 나이키, 구찌, 선마이크로시스템스 등 세계적인 기업들과 롤링스톤, 유투(u2), EMI, CKX 등 세계적인 연예 관련 회사들이 앞다투어 네덜란드에 이름만 존재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있다.²⁾ 아일랜드도 1960년대부터 음악이나 그림, 소설 등의 창작물 저작권료에 대한 비과세하는 특성때문에 유명 음악인이나 소설가들을 유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세회피처에 대한 통계 역시 정확한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 앞서 언급했듯이 조세회피처 정의도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통계도 정의에 따라 달라져야 할 뿐만 아니라 공식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역시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서 국가별 비교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³⁾ 그 가운데 많이 이용되는 통계의 출처로는 BIS, IMF, OECD, 금융안정포럼, 국제연합무역개발협회의와 같은 국제기구의 통계, 조세회피처 자체 보고서, 역외부문에 전문화하고 있는 은행 등 관련기관의 역외활동보고서, 국가의 조세당국 통계, 학술 연구, 영국의 조세정의네트워크와 같은 시민단체의 자료 등이 있다.

표 1. 조세회피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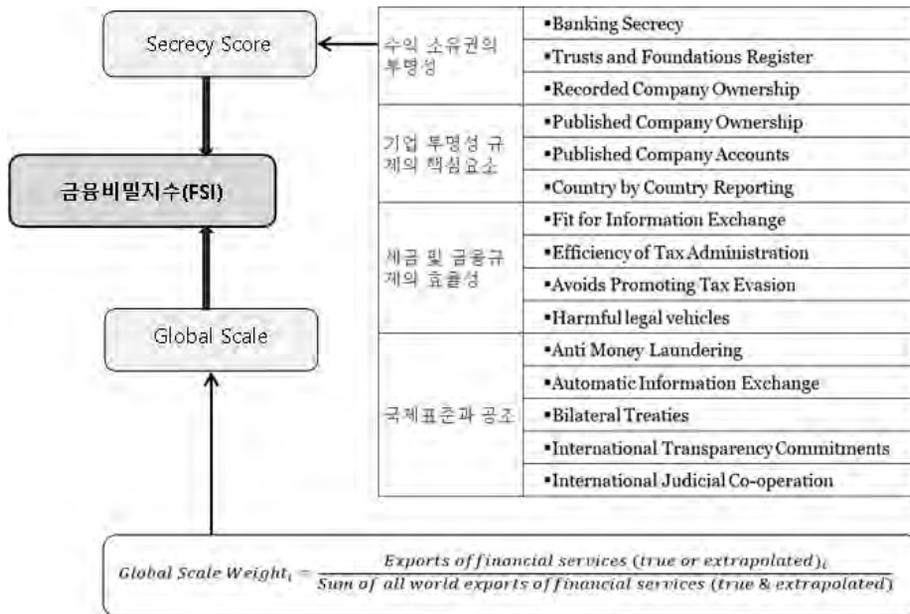
유형	정의	대표 지역
Tax paradise (완전 조세회피지역)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직접세가 전혀 없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세우는 페이퍼컴퍼니가 집중되는 지역.	케이맨제도, 바하마, 버뮤다 등의 섬이 대부분
Low tax haven (조세피난처, 저세율국)	자본과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해외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세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	마카오, 모나코, 바레인, 키프로스, 싱가포르, 스위스, 자메이카, 이스라엘 등
Tax shelters (국외소득 면세국)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고, 국내 원천소득에만 과세하는 지역.	홍콩, 파나마,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라이베리아 등
Tax resort (특별법인 및 사업소득 면세지역)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 특정한 형태의 기업이나 사업활동에 파격적인 세제 우대 혜택을 주는 지역.	영국, 캐나다, 필리핀, 그린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III. 금융비밀지수

조세정의네트워크가 처음으로 2009년 60개 지역을 대상으로 금융비밀지수(FSI: Financial Secrecy Index)를 만든 이후 세계 금융비밀주의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들이 인덱스를 산출하고 공개하는 목적은 국가들이 더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자국 정책 변경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 11월 2일 발표된 금융비밀지수(FSI) 2015년 순위에 의하면, 스위스가 1,466.1점으로 조사 대상 102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홍콩, 미국, 싱가포르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비밀지수⁴⁾는 비밀 점수(Secrecy Score)와 해외 금융 활동 규모에 따른 가중치(Global Scale Weight)에 따라 차치권 지역별 순위를 나타낸다(표 2, 표 3 참조).

금융비밀지수 리스트를 살펴보면, 약탈한 자산을 장악하도록 금융비밀을 제공하는 세계적인 주요 지역들이 작은 미니국가이거나 카리브해 같은 도서지역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크고 부유한 국가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밀점수는 4개 영역 15가지 지표로 산출되는데, 비밀점수 순으로 정리해보면 앞서 언급했듯이 지역 면적이 작거나 섬나라인 곳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은 비밀점수는 다소 낮더라도 세계 금융서비스 역외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 최종적인 금융비밀지수 순위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금융활동 비중 순위로 보면, 미국, 영국, 룩셈부르크, 독일, 스위스가 5%이상의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표 2. 금융비밀지수 산출 지표



자료 : <http://www.financialsecrecyindex.com>에서 산출지표 재정리.

표 3. 금융비밀지수(2015)

순위	지역	금융비밀지수	Secrecy Score	Global Scale Weight
1	Switzerland	1,466.1	73	5.625
2	Hong Kong	1,259.4	72	3.842
3	USA	1,254.8	60	19.603
4	Singapore	1,147.1	69	4.280
5	Cayman Islands	1,013.2	65	4.857

표 3. 금융비밀지수(2015) (계속)

순위	지역	금융비밀지수	Secrecy Score	Global Scale Weight
6	Luxembourg	817.0	55	11,630
7	Lebanon	760.2	79	0,377
8	Germany	701.9	56	6,026
9	Bahrain	471.4	74	0,164
10	United Arab Emirates (Dubai)	440.8	77	0,085
11	Macao	420.2	70	0,188
12	Japan	418.4	58	1,062
13	Panama	415.7	72	0,132
14	Marshall Islands	405.6	79	0,053
15	United Kingdom	380.2	41	17,394
16	Jersey	354.0	65	0,216
17	Guernsey	339.4	64	0,231
18	Malaysia (Labuan)	338.7	75	0,050
19	Turkey	320.9	64	0,182
20	China	312.2	54	0,743
21	British Virgin Islands	307.7	60	0,281
22	Barbados	298.3	78	0,024
23	Mauritius	297.0	72	0,049
24	Austria	295.3	54	0,692
25	Bahamas	273.1	79	0,017
26	Brazil	263.7	52	0,678
27	Malta	260.9	50	0,990
28	Uruguay	255.6	71	0,037
29	Canada	251.8	46	1,785
30	Russia	243.3	54	0,397
31	France	241.9	43	3,104
32	Isle of Man	228.6	64	0,068
33	Liberia	218.2	83	0,006
34	Bermuda	217.7	66	0,042
35	Cyprus	213.9	50	0,518

출처 : <http://www.financialsecrindex.com>.

IV. 유럽의 조세회피처

유럽지역에서 비밀점수가 높은 상위 5개국을 중심으로 유럽 조세회피처의 특징을 조세정의네트워크 보고서에 근거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비밀점수 산출은 4개 영역, 15개 지표로 이루어졌는데, 5개 국가 15개 지표별로 비밀스러운 정도를 가시화하면 그림 2와 같다. 붉은 색

으로 표현된 가장 극단적 비밀정도는 스위스 8개 지표에서, 리히텐슈타인은 9개 지표에서, 모나코와 산마리노는 6개 지표에서, 안도라는 7개 지표에서 나타났다. 특히 3-6번 지표에 해당되는 기업의 투명성 부문에서는 5개국 모두 붉은 색으로 나타났다. 가장 양호한 상태를 표현하는 녹색은 리히텐슈타인과 산마리노 12번 지표 '자동 정보 교환'에서 나타났다.

표 4. 주요 유럽 조세회피처의 비밀 점수(2015)

비밀점수 (순위)	지역	비고(FSI 순위)
76.6 (16)	Andorra	87
76.0 (18)	Liechtenstein	36
74.4 (23)	Monaco	76
72.6 (25)	Switzerland	1
69.6 (34)	San Marino	86

출처 : <http://www.financialsecrindex.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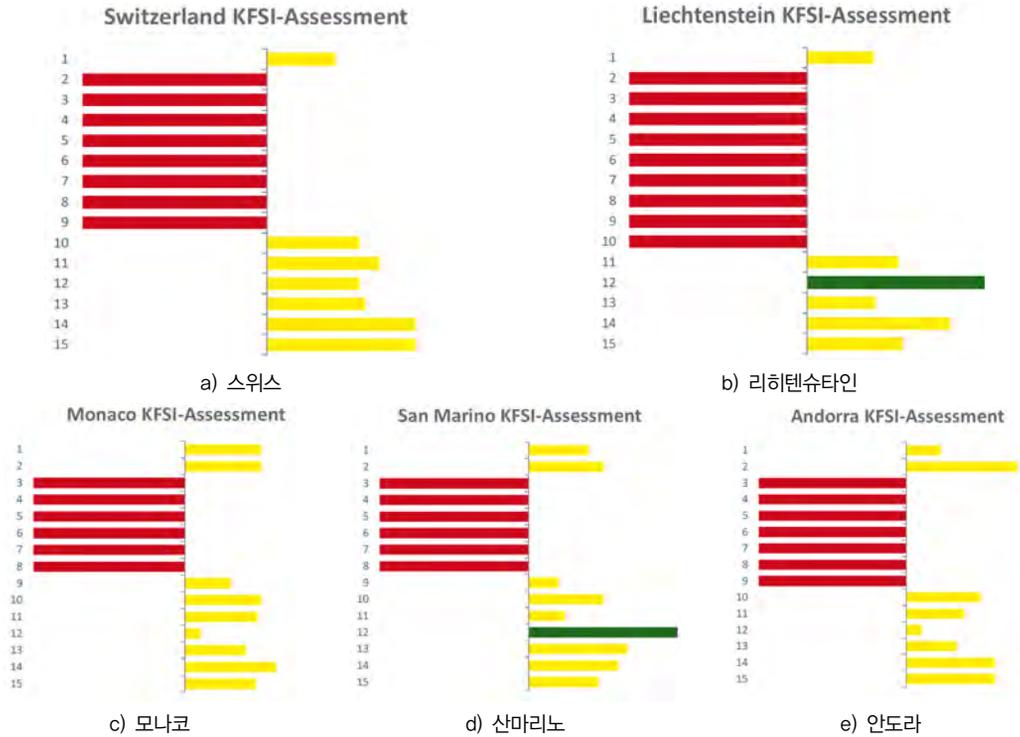


그림 2. 주요 유럽 조세회피처의 금융 비밀 점수 산출지표(2015)

출처 : Tax Justice Network, 2015a; 2015b; 2015c; 2015d; 2015e.



그림 3. 주요 유럽 조세회피처의 대표 경관

* 2015년 5월 저자 현지 촬영.

1. 스위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조세회피국이자 가장 큰 금융 센터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조세회피국인 스위스는 금융비밀지수 1위 국가로 비밀점수도 매우 높으며, 해외 금융활동 부문에서는 대략 세계의 5%나 차지하고 있다. 스위스의 비밀점수는 2011년 발표지표에 비하면 다소 완화된 것인데, 이는 스위스가 글로벌 투명성 1단계 계획에 참여한 결과때문이다. 그러나 악명높은 스위스의 은행비밀 유지법은 일부 국가들과 정보교류하는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있다.

2015년 9월에 스위스 은행가 협회(www.swissbanking.org)에 의하면 스위스가 운용하고 있는 자산 6.5조 달러 중 51%가 해외에서 유입된 자산이다. 이처럼 스위스는 세계적인 해외금융센터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절반은 인근 지역인 유럽에서 유입된 것이란 점이 특징적이다. 이처럼 스위스가 가장 핵심적인 해외금융센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정리해보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스위스 금융 센터가 투자 은행, 보험, 재보험, 헤지 펀드 및 사모 펀드, 기업의 조세 회피 구조, 해외 기업과의 신뢰 관리 등에서 매우 폭넓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위스는 세법, 정치적 안정, 삶의 질, 숙련된 노동력, 조세 조약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전략적인 입지 등 다국적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본사의 입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제네바지역, 독일어를 사용하는 취리히와 샤프 갈렌,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루가노 등 다양한 다국적 기업의 문화 기호에 맞출 수도 있다. 또한 OECD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 금융서비스는 국내 총생산(GDP)의 10% 이상 차지하는데, 이는 유럽연합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다. 또한 TJN의 스위스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스위스의 총 금융 자산은 스위스 국내 총생산의 4.6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http://www.financialsecrecyindex.com). 마지막으로 UBS와 Credit Suisse 두 거대 은행기업이 스위스 금융시장의 과반수를 독점하고 있기에 금융 관련 합의를 손쉽게 이끌어 내기 쉬운 점을 들 수 있다.

명실상부 세금회피의 효시에 해당되는 스위스는 종교 개혁기 프랑크 칼빈과 신도들이 루이14세의 종교탄압에 따라 이웃 스위스로 옮겨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운용할 수 있는 비밀계좌를 이용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유

명한 스위스 '예금주 비밀보호' 전통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차츰 거부들의 세금회피 창구로도 쓰였다. 이렇게 오래되고 깊은 뿌리를 둔 스위스 은행 비밀주의는 역사적으로 세 가지 주요 토대를 기반 하였다. 첫째, 은행 비밀주의라는 유명한 전통, 둘째, 중립국가 스위스와 직접 민주주의의 강력한 시스템, 그리고 세 번째로, 주요 정치 문제에 저항하면서도 금융기능을 보호하고자 했던 스위스 사회에 근거한 '금융 합의'라는 세 가지 토대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데 2009년 8월 스위스는 전례없이 4,000명 이상의 UBS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이후 미 법무부의 계속된 압력으로 스위스는 2013년 미국 해외계좌세금준수법(FATCA: U.S.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⁵⁾에 합의하게 된다. 물론 스위스 은행 비밀주의에 대한 미국의 압력으로 결코 스위스 비밀주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비밀주의의 압력은 단지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것도 특정 부분에 한해 개방되는 것이므로 스위스 금융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을 기점으로 스위스 비밀주의 금융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2. 리히텐슈타인

군대 없는 영세중립국인 리히텐슈타인(리히텐슈타인 공국: Fürstentum Liechtenstein)은 입헌군주제 나라이자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왕실⁶⁾ 국가이며, 11개의 지방자치제와 37,129명(2013년 12월 31일 기준)의 국민으로 이루어져 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접하며 외교권과 국방권, 재정은 스위스가 가지고 있으며 공항도 취리히공항을 이용하고 있지만 독립국가로 유럽 4번째이자 세계에서 6번째로 작은 면적의 초미니국가(micro-state)⁷⁾이다. 스위스프랑(CHF)을 사용하는 것에서 비춰 알 수 있듯이 경제체제와 결과는 스위스와 거의 유사하여 1인당 GNI(2012년) 97,960 CHF로 매우 높다(류주현, 2015).

글로벌 금융센터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EU 회원국 간 무비자 통행을 규정한 쉥겐 조약(Schengen agreement)과, 중유럽에 위치한 입지특성 덕분이다. 리히텐슈타인의 금융산업은 수출산업 발달에 따라 주요 산업으로 함께 성장하여 왔는데, 그 기반은 1924년 스위스와의 관세 협정이라 할 수 있다. 그로 인한 스위스 금융 센터와의

접근성(물리적, 통화적 등)과 각종 조약들(1926년 조약, 1995년 EEA가입 등) 덕분에 성장하게 된다. 세계 경제의 세계화는 국제 금융 시장을 더욱 가깝게 만들고 정보통신기술은 더욱 용이하게 하였다. 비록 리히텐슈타인은 주로 범죄자나 독재자들의 자금이 많이 유입됐었다는 오명도 있지만, 이제는 유럽 기업이 주목하는 특허회피처로 부상하고 있다.

리히텐슈타인 역시 OECD에 의해 주도된 국제 세금 협약에 대한 기준을 받아들임으로써 금융업의 변화를 보이게 시작하였다. 2009년 3월 12일 'Liechtenstein Declaration'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공국도 OECD의 세금부분의 투명성과 정보교환에 관한 국제기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 선언 이후 리히텐슈타인 금융센터는 자산구축 및 관리 측면에서 전문화하고자 하여, 개인과 기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장기적 재산관리에 대한 숙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금융센터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원래부터 리히텐슈타인은 법인세가 낮지만 0인 지역은 아니다.⁸⁾ 즉 리히텐슈타인을 주목하는 이유가 단순히 세금 회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 전 세계의 돈이 모이면서 스위스와 함께 금융중심지가 되었다. 그 결과 2012년 총부가가치 생산액 중 금융서비스업은 24%나 차지하고 있으며, 상당수 고급 전문노동력으로 이루어진 대형화된 금융산업이란 점이 특징적이다.⁹⁾

3. 모나코, 산마리노, 안도라

미니국가인 모나코, 산마리노, 안도라는 우리에게 모나코의 카지노, 산마리노의 우표산업, 안도라의 면세 쇼핑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관광객이 이 지역을 방문할 때 느끼는 대표적 관광 이미지이기도 하다(그림 3). 그러나 금융산업 측면으로는 이들 세 국가는 금융비밀지수 순위는 하위권이지만 비밀점수만 비교해보면 높은 비밀점수가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이 비밀주의를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미니국가이기에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모나코는 2011년 이후 새롭게 특허양도가 시작된 신생 특허양도 조세회피처로도 주목받고 있다. 비록 케이만군도나 룩셈부르크와 비교하면 양도 특허 수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수준이지만, 모나코에 양도된 특허의 절반 이상이 최근 3년(2011~2013년)에 집중되어 있듯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V. 유럽 조세회피국의 전망

세계의 기업과 개인 누구나 언제나 저렴한 세금을 원하므로 조세회피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처럼 단순히 세율이 없거나 낮다는 강점에 멈춰진 조세회피처들은 흔들리고 있다.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및 OECD 회원국들은 조세 피난처에 위치한 역외금융센터가 각국의 세수 기반을 위축시키는 데다 금융위기 확산을 부추겼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세수 확보차원에서 조세피난처를 통한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축적된 금융노하우와 숙련된 노동력이 부족한 이들 조세회피처들은 여전히 규제와 세금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부각시켜 홍보하는 것에 치중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조세회피처의 효시인 스위스가 지금까지도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세계적 기업들을 창설하고 유치할 수 있는 것은 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환경을 개선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제는 특별한 금융서비스, 기업환경을 지원하는 금융서비스, 숨겨주는 것이 아닌 자산을 늘려주는 장기적 관리서비스를 구축한 역외금융센터가 필요하다. 스위스처럼 이러한 역외금융센터다운 인프라가 갖춰진 유럽의 조세회피국들은 세계적인 역외금융센터가 되기 위해 진화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글로벌 금융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축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OECD의 세금부분의 투명성과 정보교환에 관한 국제기준을 받아들임으로써 견실하고 적어도 규제환경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조세회피처들은 기업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기업의 자금 유치에 분명 프리미엄이 존재한다.

조세회피활동에 대한 세계의 압력이 계속되는 한, 고전적 조세회피처로 인해 생겨난 문제점들은 개선되어 나갈 것이다. 불법적인 세금회피처 또는 단순히 무세율과 저세율 장점밖에 없는 조세피난처들은 나름의 특성을 살려서 결코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성장의 한계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부정적인 조세회피처의 역사일지라도 그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구축한 조세회피처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럽의 조세회피처들은 대부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조세피난처로 자본 유출이 늘고 있는 추

세다. 그동안은 주로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펀드들이 조세피난처를 활용해 세금을 피하는 수법에 주목해 왔다.¹⁰⁾ 하지만 최근에는 국내 기업들이 역외금융센터를 이용해 절세 하는 수법에도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과 더불어 부산¹¹⁾을 세계적인 국제금융센터로 성장·지원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가비밀지수 124.3으로 49위로 나타나 중하위권에 해당된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쉽게 이동되는 자금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유출되는 이상으로 국내로 유입시킬 수 있는 합법적이고 기능적인 역외금융센터의 안착을 위해 유럽 역외금융센터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註

- 1) 한국경제, 2015년 1월 19일; 조선일보, 2012년 5월 14일
- 2) 한국경제, 2007년 2월 5일
- 3) 탈세와 조세회피를 분리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세회피나 탈세 대부분이 이전가격 조작 형태를 띠는데, 그것을 식별하고 계산하는 것이 무척 어렵기 때문이다.
- 4) 금융비밀지수(FSI)는 해외금융활동 가중치의 세계 곱과 비밀 점수의 세계 곱을 곱하여 계산한 다음, 표현적 명확성을 위해 보완 가공하여 최종 지표로 산출된다.
- 5) 미국 해외계좌세금준수법(FATCA)은 2015년 6월 기준 73개 국가가 서명하였다.
- 6) 영국 데일리메일은 2015년 1월 15일(현지시간) 포브스 자산 순위 등을 분석한 결과 리히텐슈타인의 한스 아담스 2세 대공일가의 재산이 49억파운드(약 8조140억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리히텐슈타인 왕실의 자산 대부분은 전 세계 은행과 투자기관들이 운영을 맡아 수익을 내고 있다.
- 7) 영문 위키백과에서는 면적 1,000km² 이하의 국가들과 인구 500,000명 이하의 국가들을 개별적인 기준으로 미니국가(ministate), 초미니국가(microstate)로 분류한다.
- 8) 리히텐슈타인 은행들에 돈을 맡긴 사람은 범죄와 관련이 없는 한 최근 10년 동안 안 낸 세금의 10%만을 벌금으로 내면 더 이상 처벌받지 않는다.

- 9) 총부가가치에서는 24% 차지하는 금융업이지만 금융산업 종사자는 9% 정도(2013년)으로 나타나 매우 고부가가치산업이며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10) 대표적인 사례는 강남 요지에 입지한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한 론스타 소송이다. 미국계 펀드 론스타는 2001년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스타타워를 1000억원에 사들여 3년만에 3510억원에 되팔았다. 국세청은 론스타 측이 거둔 약 2500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1017억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이에 론스타는 납세의무자가 벨기에에 설립한 법인이며 스타타워 매입은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면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 11) 영국계 컨설팅그룹 Z/YEN이 2015년 9월 24일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18호’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국제금융센터지수는 724점으로 조사 대상 84개국 중 6위였고, 부산은 24위를 차지했다. 특히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준공 이후 부산은 중요한 금융도시로 발전할 가능성을 평가하는 단기 발전 가능성 분야에서는 싱가포르와 상하이, 카사블랑카에 이어 4위에 올랐다(파이낸셜뉴스, 2015년 9월 25일).

참고문헌

김대식·곽기영, 2013, “소셜네트워크분석 접근법을 활용한 글로벌 금융시장 네트워크 분석,” 한국경영과학회지, 38(4), 11-33.

김정현, 2004, “국경간(Cross-Border) 금융서비스 거래: 협의의 정의와 거래 가능성,” 경제연구, 22(3), 79-105.

류주현, 2015, “強小國 리히텐슈타인,” 한국지리학회 하계 학술대회 자료집, 103-106.

박인섭, 2008, “글로벌 금융 거버넌스의 분석적 비판과 제안: 동아시아지역에 던지는 시사점,” 아시아연구, 11(2), 1-36.

배기수, 2014, “조세회피 이론과 방지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 세무회계연구, 40, 129-146.

서영준·권순창, 2009,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 세무학연구, 26(2), 9-34.

안숙찬, 2012, “조세피난처의 이용과 기업특성,” 29(4), 257-283.

오윤, 2014,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와 탈세 대응 방안,” 조세학술논집, 30(1), 137-177.

이준봉·이재호, 2014, “역외탈세의 논의국면에서 본 탈세의 개념체계,” 조세학술논집, 30(3), 1-36.

이찬근, 2013, “조세피난처의 이중구조,” 무역학회지, 38(5), 319-346.

임동원·오윤, 2013, “조세포탈과 조세회피의 개념 구분,” 세무학연구, 30(3), 161-188.

주간 금융 브리프, 2013, “국제금융 이슈: EU의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근절대책 강화,” 22(48).

Palan, R., Murphy, R., and Chavagneux, C., 2010, *Tax Havens: How Globalization Really Works*, Cornell Univeristy Press.

Principality of Liechtenstein, 2015, Liechtenstein in Figures 2015, Office of Statistics.

OECD, 2014, Tax Transparency 2014: Report on Progress.

Tax Justice Network, 2015a, Report on Andorra.

Tax Justice Network, 2015b, Report on Liechtenstein.

Tax Justice Network, 2015c, Report on Monaco.

Tax Justice Network, 2015d, San Marino.

Tax Justice Network, 2015e, Narrative Report on Switzerland.

Tax Justice Network website: <http://www.taxjustice.net>.

Tax Justice Network FSI website: <http://www.financialsecrecyindex.com>

OECD website: <http://www.oecd.org>.

스위스뱅크 website: www.swissbanking.org.

나무위키 website: <https://namu.wiki/w/%EB%AF%B8%EB%8B%88%EA%B5%AD%EA%B0%80>.

조선일보, 2012년 5월 14일,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세금 피해 미국적포기 논란”

중앙일보, 2009년 2월 23일, “35개국에 7조 달러 빼돌려져 카리브해 섬나라 ‘악명’ 높아”

파이낸셜뉴스, 2015년 9월 25일, “부산, 세계금융도시 평가 24위 유지...금융중심지 가능성 인정”

한국경제, 2007년 2월 5일, “네덜란드 ‘세금 피난처’로 뜬다”

한국경제, 2015년 1월 19일, “‘세금폭탄 피해 다른 나라로 떠나자’...줄이는 리치노마드”

교신 : 류주현, 32588,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ryujh@kongju.ac.kr)

Correspondence : Ju-Hyun Ryu, 32588, 56 Gongjudaehak-ro, Gongju-si, Chungnam,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Email: ryujh@kongju.ac.kr)

투 고 일: 2015년 11월 17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4일
 투고확정일: 2015년 12월 5일

